



부단한 혁신을 통해 국내 최고의 발전회사로 성장한 기업!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동서발전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SC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인도네시아 Kalsi 사업 등 해외시장 진출 전략수립을 통해 글로벌 경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발전 산업의 메카, 동서발전의 핵심 발전소 국내 최초 1,000MW급 석탄화력 계통연결 성공”

당진화력은 동서발전의 핵심 발전소로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종 최신 환경오염 방지설비와 환경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최첨단 발전소이다. 500MW급 초임계압 발전소 1~4호기와 초초임계압 발전소 5~8호기를 운영하여 수도권 전기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5~8호기는 대한민국 최초로 초초임계압 방식을 채택하여 상용화에 성공, 초임계압 방식에 비해 효율을 2.36% 끌어올렸다.

현재 국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 2기에 상응하는 고효율 초초임계압 발전소인 당진화력9,10호기(총 2,040MW급)를 건설 중이다. 9,10호기가 준공되면 총 설비용량 6,000MW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로 발돋움할 것이다.



| 조환익 한전 사장(좌)과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우)이 계통연결 버튼을 누르고 있다. |

지난달 4일 신당진건설본부(충남 당진시 석문면 소재)에서 국내 최초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 9호기의 계통연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총 공사비 2조 6,447억 원이 투자되고, 75만 명의 인력(연인원)이 투입되었으며, 2015년 12월에 9호기가, 2016년 6월에 10호기가 준공되어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발전소 대비 효율이 약 0.52% 향상되어 연간 약 10만 톤의 연료 절감 및 2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최첨단 탈황·탈질 시스템과 옥내 저탄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전소 가동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치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발전소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내 최대 공업도시로 성장한 울산과 반세기를 함께한 ‘울산화력’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이바지하고 있는 유연탄 발전소 ‘호남화력’ ▲세계 최대 용량의 무연탄 유동층 발전소 ‘동해바이오화력’ ▲수도권의 중단 없는 전력 공급과 지역난방열 공급 ‘일산화력’이 안정적인 전력공급 담당하고 있다.

전 사업장 발전기, "200일 무고장 재달성"

동서발전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발전소 무고장 문화 확산 운동」을 통해 지난 6월 6일을 기점으로 ‘전 사업소 발전설비 200일 무고장 운전’을 달성했다.

- ※ 무고장 운전 기간 : 2014. 11. 18 ~ 2015. 6. 6/대상 : 5개 사업소 33개 전 발전기
- ※ 지난 2014. 8. 29「전 발전기 200일 무고장 운전」에 이어 두 번째 기록

동서발전은 그동안 발전소의 생산성 향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고장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의 고장예방 마인드 혁신, 고장 예방에 초점을 둔 Detail 점검, 취약개소 사전정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향후 전 발전기 300일 무고장 운전을 목표로 발전설비 집중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300일 무고장 달성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 발전소 위기관리 대응훈련 |

직원 상호간 의사소통 활성화 최우선

동서발전 장주옥 사장의 회사 내부 경영의 제원칙은 직원들과의 소통이다. 사장 취임 직후부터 현장소통형 CEO로서 명성이 자자했다.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횟수를 늘리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회사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직원 복지 수준의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 노력은 회사 시스템 개편으로도 이어졌다.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상황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간부들의 업무보고를 해당 부서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도록 해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실 칸막이를 없애고 유연좌석제를 실시하는 등 소통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구현에도 뛰어 들었다. 2013년 노사합의를 통한 근무 형태 개선으로 4조 3교대 근무형태를 교대근무자 8명 당 1명의 멀티 엔지니어링 인원을 보강한 4.5조 3교대의 신개념 근무체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은 새로운 인력 충원으로 이어져 회사에 젊은 기운을 불어넣어 활력 있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나아가 대체근무 최소화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하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일궈냈다.

인적자원개발(HRD) 프로그램으로 인재 양성 집중

동서발전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를 위해 발굴한 것이 바로 ‘독서경영’ 프로그램이다. 발전회사는 복잡한 전기·전자·기계 장치가 집약된 산업이다 보니 회사 직원 중 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직원들이 수치와 세밀한 분석에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거시적 시각과 인문적 소양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동서발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울산으로 본사를 옮긴 시점에서 독서경영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낯선 환경에서 자칫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직원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를 제안한 것이다.



|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인재육성을 위한 사내대학 입학식 |

이렇게 시작된 것이 ‘독서로 여는 동서발전 르네상스’라는 독서프로그램이다. 독서를 회사경영에 접목시킨 ‘독서경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문화진흥 4개년 계획에 기초한 것이다. 독서경영에 대한 효과는 상당했다. 단신 부임 직원들은 퇴근 후 독서삼매경에 빠졌고,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들도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독서를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독서의 힘일까. 그 결과 울산에 정을 붙이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가족 동반 이주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40%까지 오르면서 평균 23%인 타기관의 이주 비율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동서발전은 독서습관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독서환경 구축 등을 통해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회사 문화로 정착

어려운 이웃들과의 나눔활동은 한국동서발전의 기업문화로 뿌리내린 지 오래이다. 동서발전은 최근에도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펼치며 온누리상품권 1억원 어치를 구매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날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서는 장주옥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 및 울산화력 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 울산화력과 자매결연을 맺은 수암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채소, 과일, 쌀 등 식재료와 복지시설 후원 물품 등 총 3천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했다.



| 동서발전의 전통시장 살리기 |

또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임직원들도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서발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연 평균 약 8억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공공기간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회사 사회공헌 예산을 더해 마련한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연말 소외계층 아동을 후원하기 위해 임직원 및 방문객 중 기부희망자에게 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곰인형을 분양하는 일명 '나눔 트리' 캠페인을 통해 연말 울산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동서발전은 경기침체의 타격은 항상 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만큼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공기업으로서 항상 솔선수범한다는 계획이다. 